광주·전남 설 경기가 살아난다

백화점·대형마트 매출 쑥… 전통시장도 모처럼 웃음꽃

설을 10여일 앞두고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 마트는 물론 전통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호전되면서 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업체들은 '설 특수'를 잡기 위해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설 대목에 대한 기대감은 그동안 대형 마트의 가격 파괴 경쟁에 밀려 된서리를 맞았던 전통시장에서부터 커지고 있다.

광주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김영호 회장은 1일 "지난해 연말 매출이 전년보다 15~20% 정도 늘었으며 평일에도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설 제수용품은 전통적으로 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만큼 올 설에는 전통시장도 '설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양동시장에는 평일에도 이른 설 준비를 위해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동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날씨가 풀리면서는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면서 "물량을 늘려 설 대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매시장들도 설 대목을 앞두고 물량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각화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앙청과 중도매인 이의정씨는 "예년보다 많은 물량을 준비해둔 상태"라며 "설 대목인 다음주가 지나봐야 알겠지만 올해는 설 대목에 대한 기대가 예년보다 높은 것 같다"고 기대감을 비췄다.

설을 10여일 앞두고 광주지역 재래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1일 오후 양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소비심리가 호전되면서 지역 백화점과 대형 마트도 설 특수 잡기에 나섰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상품권 판매가 지난해보다 15% 가량 늘었으며 고액 상품권에 대한 문의도 크게 늘었다.

또 설 선물세트 가격을 3~5%가량 올렸으며 물량도 전년보다 10%가량 많이 준비했다. '프리미엄 참굴비'(10미·200만원), '350년 전통 선씨 종가 씨간장세트(500㎖·100만원) 등 고가의 명품 선물세트 품목을 다양화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설 예약판매가 지난해보다 15%가량 늘자 건강식품을 비롯한 청과, 생필품 등 선물세트 재고량을 20%가량 높였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명절 선물로 인기가 있는 건강식품과 정육, 수산 등의 선물세트 물량을 전년보다 20% 가량 늘렸다.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프리미엄 신선식품을 비롯한 가공·생활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물량을 20% 늘렸다.

저렴한 공산품 선물세트뿐만 아니라 명인(名人)재배나 유명산지, 특화된 방법으로 재배된 신선식품으로 꾸려진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구성했다.

신세계 이마트 마케팅 담당 장중호 상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선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물량도 확대하고 차별화를 둔 프리미엄 상품 등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근로자 80% 설 상여금 받는다

지역 中企 자금수요 조사…79.2%가 지급 결정

광주·전남지역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지역 130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 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79.2%가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설 상여금을 지급한 55.8%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경영여건 개선으로 자금 사정이 완화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중 3.1%는 지난해 설보다 상여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며, 62.3%는 지난해 수준으로, 13.8%는 축소 지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을 보내려면 업체당 평균 3억5천530만원의 임금 및 원자재 구입 자금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2억6천610만원을 확보, 자금 확보율이 74.9%를 보였다. 이는 전년의 49.8%에 비해 25.1%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응답업체의 54.7%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해 지난해 설(68.7%)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휴무 계획에 대해서는 3일 휴무가 68.2%로 가장 많았고 4~5일 이상 휴무할 계획인 업체도 27.1%로 나타났다.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실물경제 지표를 반영하듯 설 자금 확보 및 상여금 지급 비율이 높아졌지만, 금융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는 호소가 있었다"며 "중소기업 자금 공급 문턱을 낮춰 기업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설 효도선물 'MBT 건강신발' 어떨까

"이번 설에 부모님께 건강 기능성 신발을 선물하면 어떨까."

그동안 명절 효도선물로 보약 등 건강보조식품이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 건강 기능성 신발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기능성 신발을 찾는 노년층도 꾸준히 늘고 있다.

대표적인 신발은 국내에서 '마사이 워킹 슈즈'로 잘 알려진 MBT. 뛰어난 전신 운동 효과로 활력소를 주는 강점 때문에 마니아층이 형성되고 있다.

MBT 코리아사는 "MBT를 신고 하루 30분 이상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발목과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신발을 신고 걷는 경우보다 11% 가량 열량을 더 소모해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 균형감각이 길러져 낙상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MBT는 상품권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전국 140여개 MBT 마사이워킹센터에서 살 수 있다. 가격은 29만 7천원, 39만 7천원. (문의 1577-8009)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신세계, 유통 라이벌 롯데 제쳤다

작년 매출·영업이익 앞서

국내 유통업계의 최대 라이벌인 ㈜신세계와 롯데쇼핑㈜의 지난해 영업실적 경쟁에서 신세계가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두 회사가 발표한 2009년 영업실적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해 총매출에서 12조7천358억원을 기록해 롯데쇼핑의 12조167억원을 7천억원가량 앞서며 2년 만에 롯데쇼핑을 제치고 국내 최대의 유통업체 자리에 올랐다.

롯데쇼핑은 총매출 부문에서 2007년 신세계로부터 1위 자리를 탈환한 뒤 2년 만에 다시 2위로 내려앉게 됐다.

영업이익 경쟁에선 신세계가 지난해 9천193억원으로 롯데쇼핑의 8천785억원보다 408억원 많아 2007년 이후 3년 연속 롯데쇼핑을 앞질렀다.

하지만 순이익 측면에서는 롯데쇼핑이 신세계를 큰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위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7천215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신세계(5천680억원)에 비해 1천535억원의 차이로 우위를 점했다. /연합뉴스

설 차례상 쇠고기 늦게 살수록 유리

과일 10~12일전, 채소 5~7일전 구입하면 '알뜰'

설 차례상에 쓸 과일은 설 10~12일 전, 채소는 5~7일 전에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최근 3년간 주요 설 성수품의 도·소매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쌀과 사과·배·곶감·대추 등 과일류는 설에 가까워질수록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꾸준히 올랐다. aT는 신선도 유지와 가격 요소를 모두 고려할 때 쌀은 12일 전, 과일은 10~12일 전이 가장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채소 중에서는 배추와 무의 경우 설 약 10일 전 가격이 올랐다가 이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선도와 용도를 감안할 때 7일 전이 가장 좋다고 aT는 밝혔다.

쇠고기는 선물용 수요가 정점에 달하는 10일 전후에 가격이 가장 높고 설에 임박하면 오히려 하락했다. 따라서 설에 최대한 임박해 구입할 것을 권유했다. /연합뉴스

폭설 한파로 채소·과일류 강세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세

광주·전남지역의 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보다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폭설과 한파로 출하량이 줄어든 채소류·과실류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1월 소비자 물가는 전달보다 0.4%,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상승했다.

전남은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0.4%, 전년 동월 대비 3.6% 올랐다.

광주는 전년보다 시금치(100.3%), 파(49.1%), 생강(33.3%), 토마토(27.8%) 등 채소·과실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선식품지수가 전달보다 5.3%,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전남도 폭설과 한파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시금치(86.7%), 상추(40.7%), 파(30.5%) 등 채소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광주·전남 모두 전달보다 0.4%씩 올랐으며 지난해보다 광주는 3.2%, 전남은 4.2%가 상승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소액금융 지원 급증

지난달에만 5억2천만원

금융소외자들을 돕기 위한 소액금융 사업의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1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지부장 김기성·이하 신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소액금융 지원액이 5억2천만원을 기록, 전달(2억3천만원)에 비해 126% 증가했다. 지원건수도 81건에서 168건으로 급증했다. 이 금액은 광주시가 재원을 투입한 '빛고을 론' 지원금 1억7천300만원이 포함된 수치다.

신복위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민들의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는 인원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